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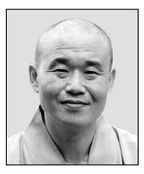
가야산 산행 및 공승법회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6월 22일 가야사지부터 서산마애불까지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를 개최한다.



백범 김구 68주기 추모재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6월 26일 오전 10시 대광보전 추모단에서 백범 김구 선생 68주기 추모 다례재를 개최한다.



공직자 인권 강연

법선 광주 문빈정사 주지 스님은 6월 1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제17회 '시민의 목소리 날' 강연에서 공직자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제15회 봉선사 연꽃축제

일관 봉선사 주지 스님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 제15회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 '연꽃愛 반하다'를 개최한다.



제40회 순국선열 위령대재

혜륜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스님은 6월 24일 오전10시 칠곡 법전사에서 제40회 순국선열 합동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어려운 형편 재소자 자비심으로 보살필 터"

Interview

교정교화 30년 서울구치소 불심회 김행규 회장



6월 14일 불심회 창립 30돌
그동안 재소자 의지처 자리매김
제2 창립 기치 걸고 활성화 나서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교화 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불자들의 모임, 서울구치소 불심회가 6월 14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김행규 불심회장(54, 법명 보성)은 30주년을 맞아 "제2의 창립이란 생각으로 새롭게 불제자로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987년 6월 의왕으로 이전한 서울구치소에서 직원 9명을 회원으로 출범한 불심회는 다양한 재소자들이 정신적 의지처가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자비보시행으로 이들을 보듬었다. 불교계 신문과 불서를 보급하고, 영치금과 생필품 보시, 심지어 불자재소자 자녀 장학금도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불심회는 30년간 교정인들의 신행모임에서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는 신행모임으로 발전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의왕 청계사에서 법회를 열고 연 2회 성지순례도 하며, 청계사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시설 녹향원 봉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불심회는 위기다. 한때 회원이 140여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4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김 회장은 "불자 교정인들도 고령화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사실 조직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30주년을 계기로 침체된 조직을 일신하고, 직원들의 결속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부임한 김 회장은 불심회가 첫 신행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 불심회는 더욱 소중하다.

김 회장은 "사회에서 격리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 전하는게 의외로 힘이 든다. 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떻게 다가갈지 항상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불자로서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밝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불자 교정인으로의 삶이 바로 수행과 같다"며 "재소자들 가운데서도 영치금을 넣어줄 이들이 없는 무의탁 재소자들이 있다. 이들을 비롯한 어려운 형편의 재소자들을 계속 보듬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외롭고 고통에 찬 중생들에게 자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사회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73주기 만해예술제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10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만해 입적 73주기 기념 만해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쌍용선원 바라밀합창단과 강천사 문수합창단 등 6개 선학원 소속 합창단이 만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렸다.

한편, 선학원은 6월 2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입적 73주기 만해추모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총동림동문회, 산불피해 복구 지원



동국대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6월 5일 강릉 성산면 관음2리 산불화재 현장에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회장 혜정 스님을 비롯해 고문 학명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재무부장 지선 스님 등이 참석했다.

회장 혜정 스님은 "산불화재로 하루 아침에 집을 잃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부처님 가치로 하루 빨리 원상복구가 됐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노덕현 기자

구례군장애인福 · 한화리조트와 MOU



구례군장애인복지관(관장 법현)은 6월 13일 한화호텔&리조트와 장애 인식 개선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 인식 개선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호텔 '룸 메이드'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을 한화호텔&리조트에서 실시한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관장 법현 스님은 "양 기관이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낙우 한화호텔&리조트 본부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화호텔&리조트가 보유한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해 장애인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IOC 위원 후보 논의

대한체육회 6월 8일 추천권 위임… "내부 검토 후 판단"

대한체육회는 6월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에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추천을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IOC위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유승민 위원 등 2명으로 이 회장의 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1명인 상황이다.

이번 위원 추천 논의는 평창올림픽 준비과정에서 IOC위원 부족에 따른 추천 필요성 때문에 이뤄졌다.

이사회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IOC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이에 이 회장은 "그동안 거명된 국내 IOC 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검토하고, IOC 위원을 지낸 바 있는 국내 NOC 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충분한 내부적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IOC 위원은 1차로 IOC 선출위원회 심사와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절차 거쳐,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위원 과반 득표시 선출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공로가 큰 조양호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추천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사회에서 유력한 추천 후보로 거론된 이기흥 회장은 체육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 첫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카누연맹 회장, 대한수영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김가영 · 김문옥 환자 치료비 지원

생명나눔, 6월 8일 각 300만원, 100만원 전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선정환자 김가영 · 김문옥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가영(가명 · 51) 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인 재활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초기 대처가 늦어져 우반신 마비와 언어장애까지 발생했다. 김문옥(61) 씨는 폐암4기로, 현재 방사선과 항암 치료비로 인해 심리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모금된 치료비를 김가영 씨에게 300만원, 김문옥 씨에게 100만원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기행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6월 11일 서울 봉은사와 서울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전통문화기행을 개최했다. 이번 기행에는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한국에서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8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국제 최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사찰 등에서 최면학 강의 및 초청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 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 · 빙의 등

KBS 굿모닝 대한민국/ 무한지대-큐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무한걸스
SBS 미워도 다시한번 JTBC 부모 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TV방송 다수 출연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중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매월 첫주 목요일 개강 – 1회 무료 수강 후 결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 원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생 퇴행 요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전생이라는 기억 속에서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의식의 틀을 재편성 함으로써 문제 해결은 물론 통찰력을 높여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 것일까?

빙의된 사람은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심심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행동, 괴벽, 정서불안 등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경우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인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영가 장애가 아닌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망상 빙의나 다중인격과 같은 빙의현상도 올바로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사찰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문제/ 분노 조절
마음의 상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스포츠 선수 기록 향상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전생요법/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